

言語變化의 측면에서 본 北韓의 主體思想*

李 炳 赫

- | | |
|---------------------------|-----------------------|
| I. 머리말 | 의 변화 |
| II.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로써의 「주체사상」 | IV. 언어정책에 따른 북한언어의 성격 |
| III. 「주체사상」에 따른 언어정책 | V. 맺음말 |

I. 머리말

국가주도적인 현대사회에서 언어와 이데올로기와의 관계는 우리의 知的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관심사를 보다 경험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제하에서 하나의 모델을 설정하고자 한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자생적이든, 타율적으로 강요되었든)는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를 반영할 뿐 아니라, 아울러 촉진시키기까지 하는 언어의 변화를 동반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언어변화는 인간의 意識 및 행동까지 변화시킨다는 입장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이런 기반위에서,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독립변수로, 언어현상을 매개변수로, 인간의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모델의 적용대상의 수준은 이 모델의 성격상 사회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모델의 구체적인 검증대상으로 북한의 사회전체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전체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1945년

* 이 研究는 1986年度 文教部 共産圈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 東亞研究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까지 한국사회는 단일한 동일적 민족공동체였으나, 1945년 이후부터는 한국이 외세에 의해 두 개의 사회집단으로 분단된 채 적대적 이데올로기를 제각기 채택하여 지금까지 대립해 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는 북한에서의 공산주의의 수용이 어떻게 언어변화에 반영되었으며, 그 결과 인간 의식의 개조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중요한 개혁, 사회전체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혁명은 언어정책의 변화를 요구한다. 인간의 그 말하는 내용과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인간과 나아가 사회를 변형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일차적으로 언어분야에서도 언어정책에 귀착되기에 이른다. 게다가, 이러한 관심사는 사회전반적 수준에서의 남·북한간의 이질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분석적 도움을 줄 수도 있다.

II.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

북한은 광복이후 「소련을 따라 배우자」라는 구호대로 소련의 영향아래에서 모든 사유와 행동의 준칙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초기에는 제급관념만 앞세워 전통과 민족에 관련된 事象을 무시 내지 말살했다.¹⁾ 그러나, 1955년 12월 「思想에서의 主體」 강조이후에는 이러한 정책의 외형적 선회가 나타난다. 이러한 선회는 민족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의미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세계가 다 공산주의화되기까지의 시한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온 세계가 다 공산주의화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므로 일정한 시기까지는 민족적인 것을 살려야 한다”라든가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 운명을 자기 자신이 결정할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민족이든지 완전한 정치적 자결을 실현하며 자기권리를 자

1) 임재욱, “북한의 민족관과 「주체사상」” 인문학성모박사학위논문, 「사회구조와 사회사상」, 실설당, 1986, pp. 258-9.

기 손에 쥐고 행사하여야만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으며,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민족과 결부되어 마치 주체사상=민족주의로 인식될 수도 있다.²⁾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김일성 자신이 답을 해주고 있다. 즉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정신은 결코 민족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주체를 확립하고 자력갱생하는 것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보다 빨리,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서이다.”³⁾ “우리가 주체사상을 내세우는 것은 민족주의로 나가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체사상은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국제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⁴⁾ “우리는 국제주의자이기 때문에 고립주의와 민족주의를 철저히 반대한다.”⁵⁾

김일성은 민족주의를 부르조아 민족주의라 해서 비난하면서, 오히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강조한다. “민족주의는 인민들간의 친선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우선 자기 나라 자체의 민족적 이익과 근로대중의 계급적 이익에 배치된다. 부르조아 민족주의와 배타주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적대되며, 대중속에서 진정한 애국주의의 진정한 발전을 방해한다.”⁶⁾

김일성은 이처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강조하면서, 계급의식과 민족의식을 결합시키고 있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노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적 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민족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킨다.”⁷⁾

2) 같은 논문, p. 259.

3) 「김일성 주석 담화문」(단행본) p. 85 (“같은 논문”, p. 259에서 재인용).

4) 김일성 연설, “우리당의 인텔리정책에 대하여”(1968. 6. 14.), (“같은 논문”, 재인용).

5) 「김일성 저작선집」, 제 4 권, p. 352 (“같은 논문”, 재인용).

6) 같은 책, 제 5 권, p. 236 (“같은 논문”, p. 260 재인용).

7) 같은 책, 제 4 권, p. 379 (“같은 논문”, 재인용).

북한사전 역시 민족주의를 부인한다. “민족주의는 계급적 이익을 전민족적 이익으로 가장하여 내세우는 자본가계급의 사상”⁸⁾이며, “자기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증오하며, 민족들 사이의 불화와 적대를 일삼는 부르조아 사상”⁹⁾이다.

이처럼 민족주의를 부정하며,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강조하지만, 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란 공산주의 일반론이기에 그들 나름대로 민족을 단위로 하는 이데올로기의 창출이 필요했다. 그것이 이른바 「주체사상」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¹⁰⁾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부르조아)민족주의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체사상」의 내용인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등의 성격을 어떠한 시각에서 설명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그람시(A. Gramsci)의 헤게모니개념을 빌려,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의 성격을 규명해 볼 수 있다. 그람시에 따르면, 「기본계급(북한의 경우, 노동당)에 있어서만이 가능한」 헤게모니는 보편적 세계관(유기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결속된 헤게모니 체제내에서 지도력의 정치적, 도덕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계급의 수중에 있다. 모든 유일한 헤게모니 관계는 반드시 “교육적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상이한 세력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그람시는 강조한다.¹¹⁾ 헤게모니 체제에서 기본계급이 행사하는 지적, 도덕적 지배는 보편적 세계관의 집합원칙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것은 일련의 역사적, 보편적 요소들에 의존하고, 또한 헤게모니투쟁에서 특정제기에 존재하는 힘의 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미리 결정되어질 수 없는 복합적 총체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 요

8)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 평양, 1970, p. 259 (“같은 논문”, 재인용).

9)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1973, p. 431 (“같은 논문”, 재인용).

10) 임재욱, “같은 논문”, p. 260.

11) A. Gramsci, *Quaderni dal Carcere*, Vol. 2, p. 1331, V. Gerratana (ed.), Turin, Einaudi, 1975. (권유철편, 「그람시의 마르크스주의와 헤게모니론」, 한울, 1984, p. 111에서 재인용).

소가 비본질적인 계급특성, 즉 부수계급의 가치관을 획득하는 것은 ‘헤게모니 원칙’(그람시는 이 용어를 명백히 정의하지 않았지만, 생산관계의 수준에서 기본계급이 담당하는 중심역할에 그 실현이 달려있는 가치체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다)과의 접합에 의해서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 요소가 또 다른 헤게모니원칙에 접합됨으로써 ‘변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사실, 이데올로기 투쟁은 이데올로기 요소들을 專有하는 두 개의 헤게모니원칙사이의 투쟁에서 특정한 이데올로기 요소들의 분리—재접합의 과정을 이룬다. 이데올로기 투쟁이란 이미 발전된 패쇄적인 두가지 세계관의 대립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제기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적 총체’는 따라서 경쟁적인 헤게모니 원칙들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결과이며, 끊임없는 변형과정을 겪는다.¹²⁾ 「주체사상」도 김일성파에 반대하는 소위 중파분자의 숙청용으로 형성, 발전되었다.¹³⁾

그리고, 그람시는 타헤게모니 원칙에 대한 특정 헤게모니 원칙의 승리를 결정하는 요인의 제시에서, 헤게모니 원칙이 그 자체의 고유한 논리적 특성에 의해 우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민중종교’(popular religion)로 지향될 때라고 언급하고 있다¹⁴⁾ 또한 그람시는 헤게모니계급이 되고자 하는 계급은 ‘그 자신을 민족주의화’ 한다는 주장¹⁵⁾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¹⁶⁾ :

국가와 민중의 차원에서 헤게모니의 윤리—정치적 요소가 드러내는 그 특수한 형태는 ‘애국심’과 ‘민족주의’로서, 이것은 지도자와 피지배자의 통일을 가져오는 ‘민중종교’이다.

12) *Quaderni*, Vol. 3, p. 1863 (권유철편, 같은 책).

13) 유영준, “발전정치론에서 본 「주체사상」”, 「북한」, 북한연구소, 1979년 10월호, p. 120.

14) *Quaderni*, Vol. 2, p. 1084 (권유철편, 위의 책, p. 112, 재인용).

15) 같은 책, Vol. 3, p. 1729 (권유철편, 같은 책, 재인용).

16) 같은 책, Vol. 2, p. 1084 (권유철편, 같은 책).

그람시에게 있어, ‘인민—민족’(people-nation)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은 ‘민족—민중’을 뜻한다.¹⁷⁾ 성공적인 헤게모니는 ‘집합적인 민족적—민중적 의지’의 이데올로기 요소를 그 자신의 헤게모니 원칙에 접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만 한다. 왜냐하면, 특정계급이 보편적인 이익의 대변자로서 나타날 경우에, 비로소 지배계급으로서의 이런 능력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족—민중’ 차원의 이데올로기 요소들이 종종 헤게모니 쟁탈을 위한 계급간의 격심한 투쟁에서 문제가 되는 원인이다.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 그람시는 ‘민족주의’와 ‘애국심’ 같은 용어가 상이한 기본 계급들에 의해서, 상이한 헤게모니원칙들에 접합될 때, 이들 용어가 겪는 의미의 변화들을 지적하고 있다.¹⁸⁾ 북한의 경우, 앞에서 보았듯이 민족주의는 ‘부르조아 민족주의’로 규정되고, 애국심은 ‘사회주의적인 애국심’으로 재규정되었다. 또한 그람시는 피지배자의 단결을 발생시키는 고리로서 이 두 용어가 담당하는 역할과, 민중종교의 기초를 제공하는데서 담당하는 역할을 강조했다.

이제, 헤게모니를 위한 특정계급의 투쟁에서 주된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민족—민중의 이데올로기 요소들을 그 계급의 담화(discourse)에 접합하는 일이다. 이것은 헤게모니원칙이 어떻게 보편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¹⁹⁾

따라서, 그람시의 헤게모니 문제영역에서 실천적으로 발견되는 이데올로기 개념은 이데올로기 요소들이 현재 접합되어 있는 기존의 헤게모니 원칙과 구별되는 또 다른 헤게모니 원칙에 이데올로기 요소들이 접합됨으로써 이데올로기 요소들의 계급속성을 변형시키는 실천을 이룬다. 여기서 뜻하는 것은 이러한 이데올로기 요소들이 자체내에 계급이해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의 계급속성은 접합이 이루어지는 담화에 의해서, 또한 담화에서 창조되는 주체의 유형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이다.

17) 권유철편, p. 113 주 51에서 재인용.

18) *Quaderni*, vol. 2, p. 1237 (권유철편, 같은 책, p. 113, 재인용)

19) 권유철편, p. 113, 주 53에서 재인용.

즉, 한 제급이 헤게모니제급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구성체의 특징적인 대다수의 이데올로기 요소들, 특히 보편적인 민중이익을 포괄하는 제급이 되도록 허용하는 민족-민중의 요소를 제급의 담화에 접합시킬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한 제급의 헤게모니는 단순한 정치적 지도력보다는 훨씬 복합적인 현상이다. 요컨대, 정치지도력은 헤게모니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이다. 한 제급의 헤게모니는 문제되는 사회의 특정한 역사적 상황속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 요소들의 가치체제에 접합된 결과인, 통일되고 밀도있는 이데올로기 담화의 창조를 통해 행사된다.²⁰⁾

Ⅲ. 「주체사상」에 따른 언어정책의 변화

앞에서, 우리는 그람시의 헤게모니적 시각을 통해 「주체사상」의 성격과 그 기능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주체사상」은 필연적으로 언어적 담화를 통해 작용하는데, 여기서 언어변화의 배경인 언어정책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945년 광복이후의 북한의 언어정책에 관한 일반적 전개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김민수의 견해를 참고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여겨진다. 김민수는 북한이 채택한 철자법원칙²¹⁾에 따라서 언어정책의 전개과정을 세 단계로 나눈다.²²⁾

제 1 단계(1945~54) ; 「통일안」시대.

이 시기는 남·북한이 다소 동일한 언어전개를 겪은 시기였다. 즉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까지, 말하자면 1948년 9월 전까지, 학자와 서적교환의 가능성과 아울러, 결국 양측이 일제 점령하에서 「조선어학회」가 발전시킨 동일한 기본개념을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언어전개를 겪는다. 이 시

20) 같은 책, p. 114.

21) 김민수는 철자법원칙의 전개가 당면한 정치, 경제적 상황과 동시에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22) 김민수, “북한의 언어정책”, 「아세아연구」, XV-4, 1972, 12월, pp. 4~18.

군→일' 군)

5) 일부 표준어의 개정(예 : 놀→노을, 달걀→닭알, 아내→안해)

「철자법」공포이후, 북한은 과학원 어문학연구소의 지도하에 새로운 철자법에 부합하는 조선어 일상화운동을 개시했다.²³⁾ 그러나, 이 2단계 말기에 몇가지 요점을 둘러싸고 結晶되는 발전의 징조가 관찰되기도 한다. 1960년대 전반기에, 김일성에 의한 언어정책의 제문제에 관한 언급이 증가했고, 바람직한 언어발전의 방향에 관해 여러가지 지적을 했다.²⁴⁾

제 3 단계(1966~) ; 「문화어」시대.

김민수는 이 시기를 「조선말 규범집」²⁵⁾이라 불리는 1966년에 새로 개정된 철자법에 따라서 「규범집」시대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시기 분류법을 따를지라도, 이 시기의 명칭에 대해서는 W. Sasse의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²⁶⁾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를 「문화어」시대라고 부르고자 한다. 왜냐하면, 제 1 단계와 2 단계가 주로 조선어 철자법의 관습에 집중되어 온 반면에, 제 3 단계는 비록 이 시기가 새로운 철자법의 관습으로 시작되어도, 전반적인 언어수준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시기로 더 적절히 특징지워지기 때문이다. 아직도 철자법운동의 강력한 요소가 남아 있지만,

23) 1954년 이후, 북한은 이 운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간행물을 출판했다 :

—「조선어소사전」, 1956.

—「조선어철자법사전」, 1956. 12. 30. p. 537.

—「조선어문자에 의한 외래어표기법」, 1956. 1. 10.

—「조선어사전」, 6권, 1960-62, p. 10+5054+4(총어휘 : 187, 137).

—「조선어문법」, 1, 1960, p. 6+479.

—「조선어문법」, 2, 1963, p. 6+311. (김민수, 같은 논문, p. 10에서 인용).

24) 북한 언어학자들과의 첫번째 담화는 1964년 1월 3일에 있었고, 두번째 담화는 1966년 5월 14일에 있었다. 이 두 번의 담화는 북한의 차후의 언어정책에 방향선회의 계기를 부여함.

25) 이 「조선말 규범집」은 1954년의 「조선어철자법」의 개정판이며, 1954년에 채택했던 사이표(‘)의 폐지 및 보다 정확한 띄어쓰기 기준과 표준발음의 규정화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규범집은 1954년의 「철자법」에 비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1946년의 「통일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26) 파리에서 1978년 4월 4일~14일만에 있었던 「제 2 회 유럽 한국학회의」에서 발표된 W. Sasse, “북한의 언어정책” 참조.

김일성이 언급한 근본원칙의 방향에 따라 보다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것이 예측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표현에 관한 강력한 운동과 고유 조선어의 어근을 바탕으로 새로운 낱말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운동(단어만들기), 문법의 표준화에 관한 토론, 그리고 일반적인 문장 및 글쓰기에서의 문체에 관한 토론의 단위인 어휘를 넘어서서 조선어의 문화적 성격 및 문체의 문제등이 개입된다.²⁷⁾ 이렇게 확대된 모든 언어활동은 「문화어」라 불리는 것으로 집중된다.²⁸⁾

사실상, 「문화어」는 북한의 표준어를 의미한다. 이 「문화어」라는 낱말은 1966년 김일성의 교시숙에서 처음으로 규정되며, 그리고 1972년 7월 4일의 남북공동성명서에 뒤이어 개정이 이루어진 헌법의 제149조 및 1966

27) 이 다양한 주제들이 다음과 같이 「사회과학원」에 의해 책으로 출판되었다 :

- 「문화어학습참고서」, 1973, p.548.
- 「조선문화어사전」, 1973, p.1060.
- 「단어만들기연구」, 1974, p.261.
- 「주체사상에 기초한 언어이론」, 1975, p.277.
- 「조선말 화술」, 1975, p.500.
- 「조선방언학개요」, 1975, p.234.
- 「우리당의 언어정책」, 1976, p.70.
- 「조선어문제론」, 1978, p.222.
- 「조선민족어 발전역사연구」, 1978, p.478.
- 「조선문화어 문법」, 1979, p.455.
- 「조선어 어휘론연구」, 1980, p.176.

28) 사실상, 「문화어」의 기반은 서울의 표준말이다. 북한사람들이 거기에서 평양 방언과 함경도 방언을 추가했다. W. Sasse에 따르면, 「문화어」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어는

- 1) 노동당의 지도하에 발전되었으며,
- 2) 혁명수도인 평양말에 근거하였으며,
- 3) 노동계급, 인민 및 대중의 정서에 어울리며,
- 4) 새로이 나타나는 어휘속에 외래어가 아닌 조선고유어를 사용함으로써, 조선인민들의 참된 감정을 표현하며,
- 5)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근거한 언어철학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으며,
- 6) 반일, 반제국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 7) 혁명적투쟁과 발전의 무기이며,
- 8) 과학적이며 아름답다.

(W. Sasse, “앞의 논문” 참조).

년 8월에 행한 외국에 대한 독립선언속에 기록된, 이른바 「주체사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²⁹⁾ 특히, 이 개정헌법속에서, 북한은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표준어도 또한 서울말을 표준으로 한 표준어 대신 평양의 방언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³⁰⁾

1964년과 1966년에 행한 김일성의 교시속에 명백히 드러난 방향은 “조선노동당 제5차회의에 제시된 중앙위원회 활동에 관한 일반보고서”(1970년 11월)속에서, 그리고 “조선노동당 제6차회의에 제시된 중앙위원회 활동에 관한 일반보고서”속에서 되풀이해서 강조되고 촉구되었다.³¹⁾

그 결과, 우리는 1966년이래 지금까지 북한의 언어정책속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사항은 북한이 한글전용의 시작과 더불어 1949년이래 폐지해 온 한자교육이 재개되었으며, 동시에 중학교에서는 영어교육을 재개하고 있다. 물론 이 한자교육이 인쇄물 속에 한자가 재등장한다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

한 마디로, 북한의 언어정책은 외형상 민족독립의 달성의 일부로써 채택된 민족어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국어의 순화는 이러한 방향의 주축이다. 게다가 이러한 기도는 「말다듬기」로 집중된 언어혁명으로 수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럼, 앞선 시기에 비해 1966년 이후로 북한의 언어정책에 방향전환을 유발시킨 김일성의 교시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북한의 정치상황을 일별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1945년 이래로, 북한은 실질적으로 일당독재하에 있다. 말하자면, 조선노동당과 그 우두머리인 김일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북한의 내각회의 의장이자 노동당중앙위원회 총서기인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처럼 북한의 유일하고

29) 이 선언문은 1970년 8월 25일 남한의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남북한 간의 비밀협상의 결과이다. 이 선언문에 따라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국토통일의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을 발견할 목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졌다.

30) 김민수, “북한의 언어정책의 현황과 문화어”, 「북한」, 1981년 9월호, p. 39.

31) 「같은 논문」, p. 36.

도 절대적인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다. 언어분야에 있어서까지도, 김일성은 언어학자의 언어를 구사하는 유일한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담화를 구사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언어정책이 수립될 때, (공공언하고도 활기차게)개입하는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김일성이 1960 년대에 들어와서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북한의 언어학자들과 두 차례의 담화를 가졌다.³²⁾

우리는 이 두차례 담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보고자 한다. : 언어정책의 4 가지 기본방향과 그 방향에 따른 9 가지 원칙들. 그럼 먼저 언어정책의 4 가지 기본방향을 살펴보자.

1. 문자개혁의 방향

김일성은 일부 북한언어학자들이 제안한 문자의 즉각적인 개혁을 단호히 반대한다.³³⁾ 반대이유로, 김일성은 세가지 주요사항을 열거했다. 첫째로, 문자개혁을 주장한 언어학자들은 언어문제를 민족문제로 결부시키지 않았다. 둘째로, 그들은 당장 문자개혁을 하는 것이 과학과 문화의 발전에 큰 지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로, 그들은 문자발전의 국제적인 방향도 고려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아직은 시기상조이므로 민족적인 것만 보고 세계공통적인 것을 보지 않는 것도 잘못이며, 반대로 세계공통적인 것만 보고 민족적인 것을 보지 않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³⁴⁾

물론, 김일성은 문자개혁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 김일성은 한

32) 첫번째 담화의 주제는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였으며, 두번째 담화의 주제는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하여”이다.

33) 여기서 언급한 일부 언어학자들이란, 김두봉파를 가리키는 것 같다. 김두봉은 주시경의 제자였으며, 중국에 망명시 떠난 “김더 조선말본”의 ‘좋은 글’이란 부록속에서 「풀어쓰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두봉은 1958년 3월에 김일성에 의해 숙청당했다. 「풀어쓰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먹기 좋아서 → 모기 기-기 | 조그하-ㅏㅓㅓ.

34) 국동문제연구소, 「북한언어정책자료집」, 1973. 8. p. 11~12.

글에 일정한 결합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면, 그 자신의 주장은 무엇인가? “우리글은 벼모난 글이다. 이 글자를 그냥 쓰겠느냐 하는 것은 연구해 보아야 한다. 고치면 좋은 점도 있다. 보기도 쉽고, 타자도, 문자의 기술화도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자개혁을 하더라도 남북이 통일된 다음에, 우리의 과학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오른 다음에 하여야 한다. 그 때에 가서는 문자를 고쳐도 같은 민족이 서로 다른 글을 쓰는 일이 없게 될 것이며, 또 사람들이 새 문자를 배우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려도 과학문화의 발전에 별로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남북조선사람들이 다같이 쓰고 있는 문자를 고치더라도 민족적인 특성을 살리면서, 세계공통적인 것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것들은 문자개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언어의 발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원칙이다.”³⁵⁾

2. 조선어 순화의 방향

조선어 순화란 조선어 어휘의 순화를 뜻한다. 어휘순화는 조선어 발전에 관한 김일성의 주장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김일성은 이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 “한 마디로 말해, 같은 뜻의 단어로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고유어를 쓰며 일정한 한자어를 쓰되, 이미 우리말로 굳어진 것만 쓰고, 그 범위를 제한하며 새로운 한자어를 자꾸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고유한 어근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말을 더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말을 발전시키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외래어도 정리해야 하겠다. 우리는 될 수 있는대로 외래어를 쓰지 말고 자기나라 말을 쓰도록 하여야 한다.”³⁶⁾

35) 「같은 책」, p. 12. (원문장의 어미는 담화체로 되어 있으나, 인용하면서 문어체로 바꾸었음. 이하 마찬가지임).

36) 「같은 책」, p. 14.

3. 평양방언을 표준어로 삼는 방향

조선어 발전에 해체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김일성은 북한의 수도인 평양의 방언이 전체 한국인민의 표준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표준어인 서울말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북한사람들은 평양의 방언을 「문화어」라 부른다.³⁷⁾ 따라서, 문화어가 서울말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해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우리말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어떤 다른 나라말을 본받아도 안되며, 또 영어나 일본말이 많이 섞여든 서울말을 표준으로 할 수 없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고유한 말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 조선말을 발전시켜야 한다.”³⁸⁾

4. 일상생활속에서 조선어를 올바르게 쓰는 기풍을 세우는 방향

김일성은 우리의 말과 글이 근로자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는 공산주의 건설과 혁명을 끊임없이 가속화하기 위해, 말과 글의 기능을 최대한도로 높이도록 교시한다. 그 결과 조선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 “다음으로 사상적으로 동원하고 사회적 운동을 벌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말을 올바르게 쓰는 기풍을 세워야 하겠다. 힘든 한자어를 쓰지 말고, 군중이 알 수 있는 쉬운 말을 써야 한다는 것을 黨權으로 널리 선전해야 하겠다. 우리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당이 옳은 방향만 내세우면 인차 그것을 따라온다.

우리는 해방직후부터 힘든 말을 쓰지 말고, 쉬운 말을 쓸 것을 주장하여 왔으나, 아직도 대중이 알아듣지 못할 어려운 말을 쓰는 사람이 많다. 어

37) 이 명칭은 1966년 5월 14일에 있었던 북한 언어학자들과의 두번째 담화에서 공식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는 1964년 1월 3일과 1966년 5월 14일 사이에 이 명칭이 만들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38) 김일성, 「저작선집」, 제 4 권, p. 10. (극동문제연구소, 「앞의 책」, p. 75에서 재인용).

떤 사람들은 마치 남이 모르는 한자어를 많이 쓰는 것을 유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쉬운 말을 하고, 쉬운 글로 쓰는 것이 더 유식하고 고상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겠다.

원래 맑스·레닌주의에 정통한 사람들은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도, 모든 이론을 알기 쉽게 잘 해설한다. 그런데 이론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록 책에서 문구를 따기 좋아하며, 힘든 말을 늘어 놓아 남이 알아들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어문학 지식이 적은 데도 일정한 원인이 있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조선말을 잘못 쓰는 것으로 보아 학교들에서 조선말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 같다. 모든 학교들에서 조선어교육을 더욱 개선강화하며, 모든 기관들에서도 국어학습을 제도화하여야 하겠다.

조선말사전을 고칠 뿐 아니라, 필요한 참고서적도 내야 한다. 어문학교과서를 고치며, 어문학교원을 많이 길러야 하겠다. 다른 모든 교과서들도 말과 글을 정리하는 방향에서 다시 검토하여야 하겠다.

이런 대책들을 세워 사람들이 다 우리말과 글을 올바르게 알아듣기 쉽게 쓰도록 하여야 하겠다.”³⁹⁾

지금부터, 앞에서 언급한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9 가지 원칙을 살펴보자. :

i) 우리는 조선어의 우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김일성은 조선어의 네가지 특성을 강조했다. ; i) 조선말의 소리는 아주 유창하며, 듣기에도 아름답다. ; “사실 우리 조선말은 아주 좋은 말이다. 우리말은 유창하며, 높고 낮음과 길고 짧음이 있고, 억양도 있으며, 듣기에도 매우 아름답다.”⁴⁰⁾

ii) 조선말은 표현이 매우 풍부하다. ; “우리말은 표현이 풍부하여 복잡한

39) 국동문제연구소, 「같은 책」, pp. 16~17.

40) 「같은 책」, p. 13.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다 잘 나타낼 수 있으며, 사람들을 격동시킬 수 있고, 울릴 수도 있으며, 웃길 수도 있다.”⁴¹⁾

iii) 조선어는 예의범절을 똑똑히 나타낼 수 있다; “우리말은 예의범절을 똑똑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산주의 도덕교양에도 매우 좋다.”⁴²⁾

iv) 조선어의 발음이 매우 풍부하다. ; “또한 우리나라 말은 발음이 매우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과 글로서는 동서양의 어떤 나라말의 발음이든지 거의 마음대로 나타낼 수 있다.”⁴³⁾

2) 이러한 우수성에 입각하여, 교유한 우리말을 살려쓰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주체사상」에 따라, 조선어의 발전은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계급의 혁명적 요구와 감정을 체현해야 한다.⁴⁴⁾

3) 구체적 순화과정에서, 대중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말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동무들의 귀에 거슬리는 것은 나쁘다고 하고, 거슬리지 않는 것은 좋다고 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⁴⁵⁾ 그리고, “언어학도 대중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학술용어같은 것도 신문에 한주일에 두 세 번쯤 내야 하며, 다듬을 말을 한번에 열댓개씩 신문에 내어 대중의 평론도 쓰게 하고, 질문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듬을 말은 중앙신문에도 내고, 그와 반대되는 의견도 다 알려주어야 한다. 지상토론에서는 제기되는 의견들도 다 알려주어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상토론을 많이 하여야 우리말이 잘 다듬어질 뿐 아니라 그것이 대중속에 널리 알려진다.

41) 「같은 책」.

42) 「같은 책」.

43) 「같은 책」.

44) 「같은 책」. p.113.

45) 「같은 책」. p.16.

이와 같이 용어들을 대중이 평론하고 좋은 의견들을 모아 마지막에 표준으로 삼을 말을 정하여 쓰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말을 다듬는데서 대중의 지혜를 모으면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⁴⁶⁾

4) 신문과 방송에서 고유한 우리말을 제 때에 받아들여야 한다.

김일성은 학교, 신문, 방송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것들이 사회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고유한 우리말을 대중매체에서부터 받아들여야, 이것을 대중속에 빨리 들여보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 “……고유한 우리말들을 대중속에 빨리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교육부문, 특히 초등학교에서부터 먼저 받아들이게 하며, 신문과 방송에서도 제 때에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⁴⁷⁾

5) 한자말과 외래어를 섬멸전의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우리말을 고치는 일은 빨리 서둘지 말고 오래동안에 걸쳐 하나하나 해나가야 한다. 결코 모든 단어를 하루 이틀 동안에 갑자기 다 우리말로 고칠 수는 없다. 몇 십 몇 백년 동안 내려온 말을 하루아침에 다 고친다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 고친 사람들 자신도 모두 기억하지 못하여 다 쓰지 못할 것이다. 이 사업은 전체인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 만큼 주관적 욕망만 가지고 감빠니아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⁴⁸⁾

6) 새로 들어오는 외래어들은 우리말로 제 때에 고쳐써야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말을 함부로 쓰는 폐단이 없지 않다. 예를 들면, <시험>이라는 말을 <에꾸자멘>이라고 하며, <학급>이라는 말은 <쿨라스>라고 한다. 지금 <뿔란>이라는 말과 <계획>이라는 말, <템포>라는 말과 <속성>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계획> <속도>라는 우리말을 쓰는 것이 대중에게 더 알기 쉽다. 어떤 사람들은 <양복저고리>라고 하면 뿔것을 <우와기>라고 하며, <양복바지>를 <즈봉>이라고 하면서 계속 일본말을

46) 「같은 책」, p. 22.

47) 「같은 책」, p. 23.

48) 「같은 책」, p. 22.

쓰고 있다. 특히 광산에서 쓰는 말 가운데는 일본말이 아주 많다. 사과 이름에도 <옥>이니 <축>이니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아사히>니 <이와이>니 하는 일본말을 조선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만일 그 종자가 일본 것이라면 일본 이름을 붙일 것이고, 우리나라 것이라면 우리 이름을 붙여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술이름을 대체로 그 나라의 지명을 따서 붙이고 있다. <삼팡>은 「프랑스」의 지명이며, 중국 <모태주>의 <모태>도 중국 귀주의 지명이다. 우리도 북청에서 나는 사과는 <북청>이라고 부르고, 황주에서 많이 나는 사과는 <황주>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외래어를 다 없앨 수는 없다. 외래어를 어느 정도 쓰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얼마간은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용어로서는 외래어를 적지 않게 써야 할 것이다. <프락포르> <선반> <볼반> <타닝반>과 같은 말은 다 그냥 쓰는 것이 좋다. <프락포르>같은 것은 원래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외래어를 그냥 쓰는 수 밖에 없다. 과학기술용어를 고칠 때에는 전문가들과 협의해야 한다. 다른 나라 고유명사는 일본말이나 중국말로 발음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발음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 나라이름은 그 나라말로 써야 한다.

숫자를 쓸 때에도 우리나라의 수사체계에 따라야 한다. 우리는 萬을 서양사람들처럼 10천이라고 써서는 안된다. 우리는 萬을 단위로 해야 한다. 물론 보통 숫자들을 밑으로부터 세 단위씩 점을 쳐 올라가는 것은 세계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조선말에 많이 섞여 들어온 외래어를 정리하고 적게 쓰도록 하며, 될 수 있는대로 우리말을 살려야 한다.”⁴⁹⁾

7) 새 말을 만들 경우, 고유한 조선말 어근으로 새 말을 만들어 써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전진하는 데 따라 우리말의 어휘도 더 늘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새 단어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새로 나오는 말들은 우리말 어근에 따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49) 「같은 책」, p. 14~15.

하여야 한다. 단어체계를 고유어와 한자어의 두 체계로 하여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단어는 우리 고유어에 근거하여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 동무들은 우리말 어근이 얼마나 되고, 漢어근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여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다. 우리말 어근이 적기 때문에 자주 한자어가 들어오지나 않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우리말 어근만 가지고 안된다면 큰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은 한 우리는 우리말 어근으로 조선어를 발전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뭇>이라는 우리말을 가지고 <나사뭇> <타래뭇> <나무뭇>과 같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요즘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돈육> <자돈> <모돈> <묘목> <묘포전>과 같이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 많다. 우리가 한자를 그냥 쓴다면 몰라도, 한자를 쓰지 않는 조건에서 이런 말을 자주 만들어내서는 안된다. <뽕잎> <뽕밭> <뽕나무>라고 하면 될 것을 <상엽> <상전> <상목>이라고 말하는데,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알 수 있으나, 젊은 사람들은 알 수 없을 것이다. <상전>이라고 쓰면, 아마 젊은 사람들은 괴뢰들이 미국놈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욕할 때 쓰는 <상전>과 엇갈릴 수 있다. <누에치기> <명주> <명주실>이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양잠>이니, <잠전>이니, <잠사>니 하는 말을 쓰며, <돼지우리>라고 하면 될 것을 <돈사>라고 하며, 열아홉살이라고 하면 될 것을 <십구세>라고 하는 것도 다 잘못이다. <담배>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무엇때문에 <연초>라는 말을 쓰는가? <석교>라는 말도 <돌다리>라고 쓰는 것이 좋다.

물론 이미 우리말로 완전히 되어버린 한자어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 <방> <학교> <과학기술> <삼각형>과 같은 말은 다 우리말로 되었다. 우리가 <학교>를 구태여 <배움집>으로 <삼각형>을 <세모꼴>로 고칠 필요는 없다. 이것은 하나의 偏向이다. 또한 <업>이라는 말도 없앨 수 없을 것 같다. <사업> <농업> <공업>과 같은 말은 다 써야 한다.

특히 과학논문이나 정치보고에서는 한자어가 비교적 많이 쓰일 수 있다.

정치술어는 좀 복잡하다. <련합회> <분과회>같은 말들은 아마 그냥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자어를 일정하게 쓰더라도 중국말을 발음만 고쳐서 그대로 써서 안된다. <사업보고>를 <공작보고>라고도 하는데, <공작보고>는 중국 말이다. 누구나 다 아는 <사업보고>라는 말을 써야 한다. 중국에서 내는 잡지 <홍기>의 조선문판을 보면, 현대 중국말을 그대로 조선말 발음으로 옮겨놓은 단어들이 많다. <정거장>을 <화차점>, <로동계급>을 <공인계급>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선말이 아니다. 이미 어근이 한자로 되어 굳어진 것은 뜯어고칠 필요가 없다. 잘못은 우리말도 많은데 잘 찾아쓰지 않고 한자어를 자꾸 만들어서 쓰는 것이다. 우리는 꼭 써야 할 한자어들을 일정한 정도에 국한시켜 놓고, 그 이상 자꾸 만들어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한자어를 제멋대로 막 만들어 쓰면, 마지막에는 우리말은 얼마 남지 않게 될 것이다.⁵⁰⁾

8) 말을 다듬을 경우, 단어들의 뜻과 결합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단어들의 뜻의 경우, 김일성은 다음과 같은 예들을 제시했다. : “그리고 한자말과 고유어가 뜻이 같으면서도 뜻의 폭이 꼭같지 않은 것들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지하>와 <땅속>, <심장>과 <염통>은 뜻이 같지만, 그 폭이 다르므로 한자말과 고유어를 다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다. 만일 <지하투쟁>이란 말을, <평양은 나의 심장>이라는 말을, <땅속투쟁>이라고 고치다든가, <평양은 나의 염통>이라고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한자말까지 모조리 없애 버린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유어와 한자말이 뜻이 같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경우에 따라 서로 달리 처리하여야 한다.”⁵¹⁾

말을 다듬는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의 경우, 김일성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말을 다듬는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고려해야 할것도 있다. <일

50) 「같은 책」, pp. 13~14.

51) 「같은 책」, p. 21.

기>란 말을 예로 들어보자. 우마가 그저 <일기>라고 할 때에는 <날씨>라고 쓸 수 있으므로 그것을 없앨 수 있지만, <일기예보>와 같은 단어의 결합을 고려할 때에는 <일기>라는 말도 그대로 두어야 한다.”⁵²⁾

9) 앞에서 언급한 원칙에 입각하여, 주체적인 조선말 사전을 편찬해야 한다.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북한사회에서 사전을 내는 목적은 근로자들에게 김일성과 그의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제급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또한 그들에게 정치, 경제, 과학, 문화, 군사등 모든 방면에 걸치는 지식을 알려주어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더욱 높임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하려는데 있다.

“우리말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많은 조사 연구사업이 필요하며, 또한 강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

동무들은 조선고유어휘가 얼마나 되고, 조선어로 되어버린 한자어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계속 써야 할 한자어가 얼마나 되고 버릴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하여, 버려야 할 것은 대담하게 사전에서도 빼버리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지 않을 한자어는 한어사전에만 올리고, 조선말사전에서는 아예 빼버려야 하겠다. 과학원에서 만들어낸 조선말사전에는 한자어가 너무 많아서 마치 중국의 옥편같다. 앞으로는 사전을 이렇게 만들지 말아야 하겠다.

그리고 姓이나 다른 기관들에서 새 말을 되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며, 모든 기관들이 공문이나 출판물들에서 정확한 조선말을 쓰도록 강하게 통제하여야 하겠다.

어문학연구소가 우리말을 정리하며, 새 말을 만들어 내는 것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되어야 한다. 동무들은 그 전의 말을 잘 다듬는데 그치지 말고, 좋은 말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무들 자신이 더

52) 「같은 책」.

깊이 연구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⁵³⁾

Ⅳ. 언어정책에 따른 북한언어의 성격

앞에서 살펴본 언어정책의 배경하에서 변화를 겪은 북한언어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주로 어휘론적 분야에서 북한언어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⁵⁴⁾

북한언어에 관한 분석자료는 국민학교 교과서를 택했는 바, 국민학교는 정치체제를 막론하고 현대사회의 「국가의 이데올로기장치」(les appareils idéologiques d'Etat)들 가운데서도 가장 원초적이고도 순수한 조직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한 권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진짜 교과서를 구하지 못해,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 교과서를 대용했다. 그 이유는 조총련의 임무가 북한노동당의 지령에 따라 재일한국동포들에게 공산주의사상을 전파하는데 있고, 그들의 교과서가 북한교과서의 복사판에 지나지 않고, 다만 지명과 이야기 주인공의 이름 정도를 바꾸는 지엽적 윤색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서방세계에서 구하기가 불가능한 북한교과서 대신에 재일조총련의 교과서를 분석자료로 삼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겼다.

교과서 출판년도는 1973 년에서 1977 년까지 다양하며, 교과서권수는 “국어” 6 권, “사회” 1 권, “말하기” 3 권, “김일성원수의 유년시절” 2 권 등 총 12 권이다.

분석대상으로는 일반 “명사”(名詞)로 한정했다. 그 이유는 언어변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고, 논의가 가장 적은 측면이 사물, 창작물, 새로운 사상에 준거한 시니피앙(언어의 소리나 철자로 된 실체)과

53) 「같은 책」, p. 16.

54)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선 다음 논문을 참조 :

이병혁, 「어휘론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 비교연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편, 「한국사회의 변동과 발전」, 법문사, 1985, pp. 532~60.

시니피에(언어의 개념적 표상) 사이의 새로운 어휘관계의 탄생이기 때문이다. 그 준거적 측면에 있어서, 언어변화는 세계의 변화리듬에 들어맞는 기본적 지식의 필요성과 모든 새로운 경험을 의사소통해야 할 필요성에 부응하고 있다. 언어변화의 신빙성 및 분량의 관점에서 볼 때, 어휘론의 측면이 다른 언어측면들(음성론, 형태론, 구문론, 문체론등) 보다 더 뚜렷하다. 그런데, 어휘적 범주들 사이에서도, 특히 명사가 어느 정도 일정한 여러 사물이나 존재를 가리키며, 게다가 인간의 정신활동의 산물과 같은 추상적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명사는 사물, 창작물, 새로운 사상에 준거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의 새로운 어휘관계 탄생의 최첨단에 서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는 어휘분석의 대상으로 명사를 선택하게 되었다.

어휘분석의 분석기준은 둘로 나누어서, 하나의 축은 「어휘의 기원」, 다른 하나는 「어휘의 내용」으로 정했다. 어휘기원은 다시 ① 순수한 우리말 ② 한자어(여기에는 복합어도 포함 : 순수한 우리말+한자어), ③ 외래어로 세분한다. 어휘내용의 경우는, ① 효도, ② 애국심, ③ 개인도덕, 혹은 수신, ④ 혈연, ⑤ 공중도덕, ⑥ 사회적 신분, 계급, ⑦ 종교, ⑧ 정당, 사회 및 정치 제도, ⑨ 군사관계, ⑩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⑪ 자본주의나 제국주의가 아닌 제3의 이데올로기, ⑫ 국제관계로 세분했다. 여기서, 우리는 12개의 내용요소들을 사회적 공간의 수준에 따라 다시 4개의 범주에 묶고자 한다. 제1범주는 개인에 근거한 가족이며, 제2범주는 유기적 연대에 기초한 사회이며, 제3범주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제도 및 이데올로기로 구성된 국가이며, 제4범주는 국제관계이다.

우리는 앞에 열거한 어휘내용의 요소들을 이 사회적 공간의 수준과 연결시켜 다음과 같이 재분류하고자 한다. 즉 ①, ②, ③, ④요소들은 제1범주에, ⑤, ⑥, ⑦요소들은 제2범주에, ⑧, ⑨, ⑩, ⑪요소들은 제3범주에, ⑫요소는 제4범주에,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는 12개의 요소들을 일관된 방

향을 지닌 지평선상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어휘의 기원」에 따른 분석

i) 순수한 우리말 ; 1362 (37.7%)

ii) 한자어 ; 2162 (59.9%)

iii) 외래어 ; 87 (2.4%)

한자어의 비율이 가장 높고, 대략 $\frac{3}{5}$ 수준에 이른다. 참고로 본 분석과 1956년 평양에서 출판된 4만단어가 실린 「조선어소사전」의 분포를 비교해 보자. 물론 이 두 수치들은 같은 수준에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어휘의 변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비교해 보는 것도 무익하지는 않을 것이다 :

<본 연구와 「조선어 소사전」 사이의 비교표>

기 원 \ 출처	본 연구	조선어소사전 ⁱ⁾	차 이 ⁱⁱ⁾
i) 순수한 우리말	37.7%	49%	-11.3%
ii) 한자어	59.9%	50%	+9.9%
iii) 외래어	2.4%	1%	+1.4%
합 계	100%	100%	

i) 자료 : 1979년 2월 12일 파리의 “아시아연구소”에서 V. Pucek이 발표한 「북한의 언어」라는 논문.

ii) 차이의 기준은 「조선어소사전」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본 연구의 ‘순수한 우리말’의 비율(37.7%)이 「조선어소사전」의 비율(49%)보다 낮은 반면에, ‘한자어’와 ‘외래어’의 비율들은 「조선어소사전」의 비율들보다 높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순수한 우리말’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에, ‘한자어’와 ‘외래어’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다. 이런 비율의 차이가 생긴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조선어소사전」이 출판된 1956년은 「철자법」시기에 속한다. 이 「철자법」시기는 「통일안」시기인 1949년의 한자어 전면폐지 후 개시된 「말다

듣기」운동을 심화시키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선어소사전」은 이 시기에 심화된 국어일상화운동 중 하나의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선어소사전」은 그 당시의 실제적인 언어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어휘들의 지침이나 규범으로 쓰일 뿐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국민학교 교과서의 명사에만 국한되어 있다. 우리가 보기에, 이런 자료들의 이질성뿐 아니라, 「주체사상」이 개입된 시간적 차이가 이런 비율 간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 같다.

2) 「어휘의 내용」에 따른 분석

- i) 개인에 근거한 가족 ; 270(31.1%)
- ii) 사회 ; 117(13.5%)
- iii) 국가 ; 469(54%)
- iv) 국제관계 ; 12(1.4%)

여기서 「국가」가 가장 높은 이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선, 현대의 파시스트형태의 국가라 할 수 있는 공산주의적 북중국가인 북한에선, 당의 교리가 바로 국가는 당지도층이 규정한 정치적 도구라는 국가이데올로기를 구성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는 그 힘과 궁극성을 동시에 의존하고 있는 당의 힘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체제는 전체주의에로 이르는 당과 국가간의 공생체제이다. 아민의 표현에 따르면(S. Amin, 1979 : 204), 북한사회는 “국가형태”(le mode étatique)로 확고히 자리잡혀 있다. 따라서, 국가로의 집중화가 언제나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활동에서 우위성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로, 북한은 완전히 군사화된 체제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로, 북한체제는 공산주의 선전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적대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에 몰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개인에 근거한 가족」이 두 번째 자리에 온 이유는 북한체제가 전통적 가족을 폐지시킨데 뒤이어, 당자체와 북한의 전주민이 그 초상화를 각 가정에 걸고 있는 “최고원수”의 가정을 이루기 때문이다. 김일성을 가리켜 자

주 부르는 “아버이”라는 칭호는 국가원수에 대한 충성을 父子관계로 대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옛 “조상들”과 똑같이 신격화된 어버이에 대한 효도는 또한 조상숭배이며, 공산주의 국가들 가운데서도 드물게, 북한은 가족국가(un Etat-famille)이며, 그 가족국가의 원수는 똑같이 어버이이자 살아 있는 조상이다(J. Pezeu-Massabuau, 1981 : pp. 98~100).

「국제관계」가 네번째 자리에 온 이유는 북한이 추구하는 자급자족적 경제에 이르기 위한 자립적이며 독립적이며, 대중동원적인 발전정책으로 설명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은 전세계로부터 고립되고 폐쇄된 사회로 머물게 되었다.

그럼, 지금부터 두개의 기준을 교차시켜 얻은 결과를 검토해 보자.

3) 우선, 「어휘의 관점」에서 본 「어휘내용」의 분포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어휘내용 \ 어휘기원	C. I.	C. II.	C. III.
C. I.	63(50%)	207(28.4%)	0
C. II.	12(9.5%)	103(14.1%)	2(16.7%)
C. III.	51(40.5%)	408(55.9%)	10(83.3%)
C. IV.	0	12(1.6%)	0
합 계	126(14.5%)	730(84.1%)	12(1.4%)

*괄호속의 퍼센티지 수치는 소수점 두자리에서 반올림 한.

「어휘기원」의 기준의 「한자어」범주의 비율이 84.1%에 이르며, 「순수한 우리말」의 비율은 14.5%이며, 「외래어」의 비율은 1.4%이다. 이러한 북한의 분포는 우리가 조사한 남한의 분포⁵⁵⁾보다 더 균형잡혀 있다. 그 이유로서 우리는 1966년 이래 북한의 꾸준한 언어순화운동이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강력히 추진되어 온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어휘기원」상의 「순수한 우리말」의 경우, 「어휘내용」상의 「개인에 근거

55) 이병혁, 「같은 논문」, p. 555 참조.

한 가족」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가 40.5%이며, 「사회」가 9.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가 두번째 자리에 온 이유는 북한의 「말다듬기」 운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자어」의 경우, 「국가」가 5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에 근거한 가족」이 28.4%를, 「사회」가 14.1%를, 「국제관계」가 1.6%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이유는 정치적, 군사적, 행정적 어휘들과 이데올로기에 관한 어휘들이 대부분 「한자어」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사회체제가 당과 국가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래어」의 경우, 「국가」가 83.3%를 차지하고, 「사회」가 16.7%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 이유로서, 우리는 북한체제가 자기자신의 이데올로기선전과 아울러, 그 외부 적대세력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4) 「어휘내용」의 관점에서 본 「어휘기원」의 분포상황에 관한 표는 다음과 같다 :

어휘기원 \ 어휘내용	C. I.	C. II.	C. III.	C. IV.
C. I.	63(10.3%)	12(10.3%)	51(10.9%)	0
C. II.	207(76.7%)	103(88%)	408(87%)	12(100%)
C. III.	0	2(1.7%)	10(2.1%)	0
합 계	270(31.1%)	117(13.5%)	469(54%)	12(1.4%)

*괄호속의 퍼센티지 수치는 소수점 두자리에서 반올림함.

「어휘내용」의 기준에서의 「국가」의 비율이 54%를 차지하며, 「개인에 근거한 가족」의 비율은 31.1%이며, 「사회」의 비율은 13.5%이며, 「국제관계」의 비율은 1.4%이다. 비율상의 분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조사한 남한의 분포⁵⁶⁾가 북한의 분포보다 더욱 균형잡혀 있다. 이런 사실은 북한의 교육이 남한의 교육에 비해 덜 조화적이며, 보편적인 인간형성보다

56) 「같은 논문」, p. 557 참조.

는 풍산주의형 인간형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개인에 근거한 가족」의 경우, 「한자어」가 76.7%를 차지하며, 「순수한 우리말」이 23.3%를 차지한다.

「사회」에 있어, 「한자어」가 88%를 차지하며, 「순수한 우리말」이 10.3%를, 「외래어」가 1.7%를 차지한다.

「국가」의 경우, 「한자어」가 87%를 차지하며, 「순수한 우리말」이 10.9%를, 「외래어」가 2.1%를 차지한다.

「국제관계」의 경우, 「한자어」가 100%를 차지한다.

이 표 상에서 「어휘기원」상의 비율들(76.7%, 88%, 87%, 100%)은 「어휘기원에 따른 분석」에서 나타난 비율(59.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북한의 언어순화운동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휘수준에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지 모르나, 가족, 사회, 국가, 이데올로기, 국제관계 등의 분야에서 쓰이는 추상적이자 문화적인 어휘들에서는 아직도 더욱 언어순화운동을 추진해야 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언어순화운동이 과거에 진행되어 온 성과에 비취볼 때, 순조롭게 뜻대로 진행되리라는 전망을 갖기는 어렵다.

V. 맺 음 말

위에서 살펴 본 북한의 어휘분석에 관한 통계적 수치는 원칙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에 따른 언어정책의 시행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현상,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어휘분야에 있어서의 언어현실을 머리말에서 언급한 모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북한이 내세운 「주체사상」을 독립변수로 보았을 때, 이 「주체사상」이 그 이데올로기의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매체로서, 말하자면 매개변수로서의 언어(특히, 그 중 어휘분야)현상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변화를 일으켰다. 따라서, 북한에 있어서는, 「주체사상」에 따라 만들어진 새로운 어휘의 사용이 새로

운 형의 인간을, 말하자면 언어와는 불가분리한 종속변수로서의 인간意識을 통해서 공산주의적 인간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위에 제시한 모델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일반화된 차원에서 볼 때,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명제들을 끄집어낼 수도 있다고 본다. :

—언어는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표상되어진 사회현상의 반영물이며,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확립된 사회관계의 형태가 어휘와 그 의미를 결정짓는다.

<참 고 문 헌>

- 김민수, “북한의 언어정책”, 『아세아연구』, XV-4(12월) : pp. 1~53.
 ———, 『신국어학사』, 일조각, 1978.
 권유철편, 『그람시의 마르크스주의와 해계모니론』, 한울, 1984.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언어정책자료집』, 1973. 8.
 이병혁, “어휘론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 비교연구”, 서울대사회과학연구소편, 『한국사회와 변동과 발전』, 법문사, 1985.
 임채옥, “북한의 민족관과 「주체사상」”, 인곡황성모박사화갑기념회, 『사회구조와 사회사상』, 심설당, 1986, pp. 243~261.
 Althusser, Louis, *Positions*, Paris, Editions Sociales, 1976.
 Amin, Samir, *Classe et nation*,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1979.
 Guilbert, Louis, *La créativité lexicale*, Paris, Larousse, 1975.
 Pezeu-Massabuau, Jacques, *La Corée*, Paris, P.U.F., 1981.
 Rey, Alain, *La lexicologie*, Paris, Klincksieck, 1970.
 Simon, Michel, *Comprendre les idéologies*, Lyon, Chronique Sociale de France, 1978.